

AG 금빛 기운 안고 3위 추격 “선봉에 선다”

KIA 김도영·박재현, 복귀 첫 경기부터 맹타

김도영 ‘41호포’ 포함 3안타·박재현도 3안타…완전체 ‘진가’ ‘막강 화력’ 전개…준PO행 티켓 걸린 막판 순위싸움 청신호



은 타격감을 보였다.

두 선수 모두 3안타를 때렸다. 박재현은 빠른 발까지 보여줬다.

시즌 막판 3위 추격에 나선 KIA에도 활력을 더했다.

김도영과 박재현은 지난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 나란히 선발 출전했다.

박재현은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5타수 3안타 1도루 1득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3번 타자 3루수로 나섰다. 5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둘이 합쳐 10타수 6안타를 때렸다.

두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뒤 지난 28일 귀국했다. 하루 뒤 곧바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경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경기 전 두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김도영과 박재현 모두 문제가 없다며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긴 대표팀 일정과 이동도 문제없었다.

1회부터 2점을 합작했다.

박재현이 중견수 앞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1사 1루에서 김도영이 KT 선발 로건의 시속 147km 직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시즌 41호 홈런이다.

이 한 방으로 타이거즈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다. 1999년 해태에서 뛰었던 트레이시 샌더스의 40홈런을 넘어섰다.

김도영은 이후 안타 2개를 더 보냈다. 복귀전부터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박재현도 두 차례 더 안타를 추가했다. 도루까지 성공하며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볐다.

다만 KIA는 이날 승리를 쟁기지 못했다.

5-5로 맞선 연장 10회초 3점을 내줬다. 10회말 반격에 실패하며 5-8로 역전패했다.

패배는 아쉬웠지만 김도영과 박재현의 활약은 그나마 위안이었다.

대표팀 차출로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돌아오자마자 방방이가 매서웠다.

김도영은 KIA를 대표하는 간판타자다. 중심



김도영

박재현

〈KIA 타이거즈 제공〉

타선의 핵이다. 장타력과 해결 능력을 갖췄다. 홈런 부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재현도 올 시즌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상위 타선에서 꾸준히 공격의 활로를 열어왔다. 빠른 발을 활용한 주루와 수비가 강점이다.

두 선수의 복귀로 KIA 타선도 다시 완전체가 됐다.

남은 경기는 이제 11경기다.

29일 기준 KIA는 3위 LG에 2경기 뒤진 4위다. KT와 주중 시리즈를 치른 뒤 주말에는 LG와 직

접 맞붙는다.

3위 추격을 위해 매 경기가 승부처다.

김도영과 박재현의 가세가 반갑다. 막판 순위 싸움에서 두 선수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주홍철 기자

대한민국이 함께 만드는 감동!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준호 역전골 “4회 연속 우승 보인다”



중국戰 선제골 허용…이영준·배준호 역전골로 2대1 승리…3일 일본·우즈베크 승자와 우승 격돌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에 한 경기만을 남겨뒀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 일본 오사카 나기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최다 우승국(6회)이자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금메달을 따냈던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3일 오후 7시30분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일본 준결승전의 승자와 금메달을 다툰다.

이날 대표팀은 초반부터 세트피스 기회를 여러 차례 얻었으나 수비 시 ‘5백’으로 촘촘한 벽을 세운 중국에 막히고 거친 플레이에도 시달리던 한국은 전반 22분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했다.

중원이 완전히 열리면서 중국 미드필더 우시가 센터서클에서 공간을 노린 로빙 패스를 보냈고, 왕위둥이 절묘하게 가슴으로 받아낸 뒤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해 왼발 슛을 쏘았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33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임지성이 올린 코너킥을 이영준이 머리로 받아 넣으며 동점 골을 터뜨렸다. 소속팀 사정으



30일 일본 오사카 나기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후반전 한국 배준호가 헤더로 역전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로 합류가 늦어지면서 조별리그 2차전부터 나선 이영준은 베트남과의 8강전 멀티 골에 이어 이번 대회 3번째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을 시작하며 한국은 이현주 대신 강상운(전북)을 투입,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고 배준호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 역전을 노렸다.

하지만 중국의 밀집 수비를 쉽게 뚫지 못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중국의 간헐한 공격에 도리어 흔들리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후반 34분에 무탈리푸 이밍카리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김지수가 머리로 걷어내려다 자책골이 될 뻔한 상황도 있었다. 간발의 차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위기를 넘긴 대표팀은 후반 37분 마침내 전세를 뒤집는 골을 만들어냈다.

임지성이 면을 휘저은 뒤 절묘한 크로스를 올렸고, 배준호가 헤더로 골 그물을 흔들며 천금같은 역전 결승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강에 복귀했다.

이번 중국전은 한국 여자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지소연(수원FC 위민)의 마지막 아시안 게임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도 2006년 도하 대회부터 올해로 6번째 참가한 그는 일본과의 준결승전 이후 “4년 뒤면 39살”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임을 거듭 확인하며 중국전에서 ‘유종의 미’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환·김민성, ‘金 편치’ 정조준

12년 만의 금 도전



한국 남자 복싱이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한국 남자 복싱 차세대 주자 장동환과 김민성(이상 한국체대)은 2일 열리는 복싱 결승전에 나란히 출격한다.

준결승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은메달을 확보한 두 선수는 이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다.

선수단을 이끄는 김호상 복싱 대표팀 감독 역시 선수들의 상승세와 남다른 동기부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호상 감독은 30일 “여자 선수들이 먼저 좋은 성적을 내면서 남자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과 힘이 됐다”며 “장동환과 김민성 모두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남자 복싱은 2014 인천 대회 신종훈(남자 49kg급)과 함상영(56kg급) 이후 아시안게임에



지난달 29일 열린 복싱 남자 60kg급과 80kg급 준결승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금메달 도전에 나선 장동환(왼쪽)과 김민성. /연합뉴스

서 금맥이 풀렸다.

김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첫 경기를 유독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하루하루 치러지는 경기마다 기량이 올라왔고, 이기면서 자신감도 붙었다”고 돌아봤다.

마지막 관문에서 마주할 상대들은 체급별 세계 최정상급 복서들이다.

김 감독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선수들 모두 ‘12년 만에 금메달을 뒤흔아 찹찼던 한국 복싱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품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

박정윤·최용희, 컴파운드 혼성전 은메달



한국 컴파운드 양궁이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슛오프 끝에 패해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정윤(창원시청)과 최용희(현대제철)가 짝을 이룬 한국은 30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양궁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와 157-157로 비긴 뒤 슛오프에서 19-20으로 졌다.

박정윤은 강연서(성사중), 박예린(한국체대)과 호흡을 맞춰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을 229-228로 꺾었다. 한국은 2회 연속 이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용희, 김중호(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 남구청)가 출전한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은 단체



컴파운드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한 최용희와 박정윤. /연합뉴스

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에 233-234로 저 처음으로 시상대에서 밀려났다. /연합뉴스

지소연, ‘라스트 댄스’…내일 중국과 동메달 결정전

아시안게임 사상 첫 결승 진출 꿈을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8년 만의 메달을 향해 마지막 일전에 나선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2일 오후 3시부터 일본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의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중국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지난달 29일 이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0-2로 지며 동메달 전으로 밀렸다.

결승과 금메달은 물 건너갔지만, 대회를 마무리할 중국과의 대결엔 ‘8년 만의 입상’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다. 한국은 2023년 열린 2022항저우 대회 패전 8강 탈락했다가 이번 대회에서 4